

학생수 급감...전남 단성학교, 남녀공학 속속 전환

광양여중·광양중학교 남녀공학 전환해 내년 3월 개교 학교 경쟁력 강화·학생 선택권 확대...전환 요청 쇄도

전남 지역 단성(單性)학교들이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원거리에 따른 통학 불편으로 잇따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단성을 유지했던 학교들마저 변경을 공론화하는 분위기에 앞서 앞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요청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광을 비롯한 서부권과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단성학교들의 남녀공학 전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적으로는 2015년부터 목포와 장흥 등에서 5개 중학교가 남녀공학을 이미 진행했다.

전남 지역의 중학교 개편은 최근 4년 사이 장흥

과 영광, 순천, 광양 등 4개 시군에서 16곳이 이루어질 만큼 눈에 띈다. 올해 3월에는 영광 3곳과 순천 3곳 등 총 6개 중학교가 남녀 신입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은 전체 중학교 256개 중 남녀공학은 215개교(84%), 단성학교는 41개교(16%)가 됐다.

또 최근 여수와 광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높아 나머지 단성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역의 경우 제1학교 군에 위치한 9개 학교 가운데 구룡중을 비롯해 종고중, 여수중, 충덕중, 여수여자중, 진남여자중, 중앙여자중, 진성여자중

학교 등 8개 학교가 현재 단성학교이고, 문수중학교만 유일하게 남녀공학인 셈이다. 현재 8곳이 내년 3월 입학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에 있는 광양중학교와 광양여중 역시 사실상 내년 3월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새 이름을 공모하는 등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분위기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정책(善處之策)으로 풀이된다.

학생 수 감소와 성비 불균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녀공학이 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학교 경쟁력 강화와 사회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 이름 제정과 관련 갈등이 벌어지고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혼성교육 지원책이 뒤따르지 못한 상태여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여중은 내년 남녀공학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교명을 선정했다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선정된 이름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양지역 학부모 A씨는 "남녀공학 개편을 찬성하지만, 성적 차별이 아닌 아이들의 성격에 맞는 학교 개편과 그에 따른 선택도 중요하다"며 "반대의 입장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단체 한 전문가는 "남녀공학전환이 최근 경향이고 학교 선택 기회 확대나 사회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혼성교육에 따른 학습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 마련이 제대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마약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전남경찰청 '동부팀' 신설

전남경찰청이 전남 동부지역에서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범죄수사계 동부팀'을 신설했다.

전남경찰청은 6일 순천시 가곡동 순천경찰서에서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 동부팀' 출범식 및 현판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신설 팀은 순천경찰서 부지 내에 있는 전남경찰청 별관에 배치됐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신설한 마약범죄수사계 동부팀 출범이 마약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의 '2024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미국 링컨기념관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 학생들, 미국 학생들에 5·18 알렸다

시교육청,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 찾아 K-pop 공연 등 선보여

광주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과 K-pop을 알렸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생생 20명이 지난 1일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5·18민주화운동 플래시몹과 K-pop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오는 9일까지 미국에서 진행하는 '2024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에서 제기차기, 고무신 던지기, 비사치기 등 전래놀이도 소개했다.

이 학교는 미국 현지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학교다.

광주 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과 K-pop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캠프 기간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 토마스제퍼슨 기념관 앞, 백악관 앞 라파에 광장, 뉴욕 워싱턴 광장 공원 등 미국 곳곳에서 5·18

민주화운동 플래시몹과 K-pop 공연을 펼쳐 현지인의 호응을 얻었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비를 방문해 현화하고, 한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식도 열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플래시몹과 K-pop 공연 등으로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훌륭한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없어도 보호 조치해야

인권위 “2차 피해 방지 의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상당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했을 경우 직장 상사에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 정신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중간관리자 직급의 A씨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직원 B씨와 상담을 하면서 "다른 직원 C씨가 인사 개입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 때 B씨는 신고 사실을 공식 접수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가해 직원 C씨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았으며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려 한 동년 B씨와 C씨를 같은 사무실 옆자리에서 근무하게 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서로 업무를 잘 가르쳐주고 배우라", "앞으로 일을 함께 해야 하니 싸우든 뭘 하든 풀고 오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

A씨는 "C씨의 인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B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 "C씨도 힘들어한다", "B씨에게는 동료애가 없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A씨는 직장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 사실을 공식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iyou@

광주 동구, 21일 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 주민 설명회

광주시 동구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

동구는 21일 오후 4시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 5층 아트홀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동구는 설명회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역할과 인체·환경영향 영향, 대상 부지 공모 계획, 국내·외 사례, 유지 시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광주시가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입 금지조치에 대비해 추진 중이다. 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

를 처리할 수 있는 6만 6000여㎡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자치구가 먼저 입지를 제시하면 광주시가 주도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구는 이달 중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할 계획으로,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개인, 법인 등이 응모 대상이다.

광주시는 시설이 들어설 자치구에 580억원 수준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비롯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iyou@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